

사회

승용차서 마취제 투약하고 환자에 마약류 투여 후 '못된 짓'

의사들 마약 관리 문제 많다

감독 체계 허술·인력 모자라 보완 시급

광주의 한 전문의가 마취제를 자신의 몸에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전주의 한 수련의는 20대 여성환자에

근에 주사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주로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과다 투약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약물로 마약류 관리법상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경찰조사 결과 수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C씨는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사용중인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려 투약한 것이 아냐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도 최근 만취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인

간 전주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2시5분경 자신이 근무중인 병원 4층 병실에 입원중인 B씨의 옆에서 잠을 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의 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돼 A씨가 B씨에게 몰래 케타민을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B씨에게서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한 상태며,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중징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의사들의 잇단 불법 행위는 이들 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실상 의

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내부에서 관리자를 지정, 이들 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또 마약 등을 투여할 때 환자의 이름과, 병명, 투여 약물의 종류, 투여량 등을 관리대장에 적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작성한 관리대장을 토대로 감독을 벌인다. 그러나 인력 등의 한계로 사실상 이들 약품이 환자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 모 보건소 관계자는 "혼자서 1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체계를 감독하고 있다"며 "병의원에서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이들 약품을 규정을 벗어나 사용하더라도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헬기 추락 송전선 끊겨 고흥 6만가구 정전

양식장 9곳 13억 피해

장시간 정전으로 빚어진 고흥 지역 양식장 피해액이 1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흥군은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간여 동안 일어난 정전으로 양식장 9곳이 피해를 보았고, 피해액은 1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도하면 구암리에서 5곳, 도양읍 봉암리, 두원면 대전리, 동일면 백암리, 풍양면 풍남리에서 각각 1곳이 정전으로 양식 물고기 폐사했다. 폐사한 물고기는 송어 270만마리, 넙치 76만마리, 감성돔 50만마리, 전복 20만마리, 새우 15만마리 등 총 431만마리다.

고흥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전

과 함께 정확한 정전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있지만 보상은 정전에 따른 것으로 한전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경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에서 방재 작업을 하던 민간헬기가 고압선에 걸려 야산으로 추락, 기장이 송지고 고흥에서 벌교를 연결하는 송전선이 끊어지는 사고로 고흥 지역 6만여가구가 정전됐다.

1만8000여가구는 2~3시간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나머지는 이튿날 새벽 2시경 복구가 완료되면서 양식장에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iu@

나원침 (8386) 김중두



남자는 수렁질텐데 걱정이다



치안 만족도 전남 1위

경찰청 설문조사 결과

전남지역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4월과 7월 전국 7440명을 대상으로 범죄, 교통사고 등 분야별 안전도와 전반적 치안 안전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남지방경찰청의 종합 체감안전도는 전체 평균 61.4점보다 6.3점이 높은 67.7점으로 1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58점으로 전체 13위를 기록

했다. 2위는 65점을 기록한 전북이 차지했으며, 3위는 64.8점인 경북이다.

변화한 지역일수록 범죄나 치안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한 상대평가에서는 전남(64.3점), 전북(63.2점), 대구(62.8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광주는 61점으로 9위에 그쳤다.

전남청은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 부문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범인검거 및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노력 수준'에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의경에 모욕적 언사

경찰 들 파면·해임

의경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경찰관 2명이 중징계당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의경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유 등으로 교통과 소속 A 경위를 파면하고 B 경사를 해임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한 명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사 관련 서류를 고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부서 의경(21)에게 폭언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8일 고발됐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으나 해당 경찰관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행정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3년전 자식 버리고 가출 어머니 아들 사망 보험금 나오자 "돈 내놔"

시아머니 상대 소송... 누리꾼 '나쁜 엄마' 비난

여수에 사는 50대 여성이 20여년 전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간 뒤 뒤늦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챙기려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제기돼 누리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23년 전 자식을 버리고 이혼한 어머니가 죽은 동생의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23년 전 나와 동생을 친할머니에게 맡긴 채 떠난 어머니(51·여수시)가 수년 전 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주어진 거액의 보상비를 친할머니로부터 빼앗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는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10여년 전 숨졌으며, 친할머니가

생선장사를 해 어렵게 우리를 키워줬으나 남동생은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졌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자신과 친할머니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으로 총 1억 3000만원(친할머니 7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글쓴이가 자신의 글에 남긴 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한 결과 실제로 7200만원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은 23일 오후 현재 조회수가 7만건이 넘고, 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식의 죽음으로 나온 보상비를 뒤늦게 챙기려는 비정한 어머니'라며 비난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유모차 싸게 판다" 주부 등친 20대 딸미



○광주북부경찰은 23일 인터넷에서 '수입 유모차를 싸게 판다'고 속여 주부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임모(20)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수입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주부 20명으로부터 총 102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주부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 5개를 돌려 사용하는 등 침묵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전거 이용한 전기생산

23일 광주시 광산구 신항동 호반베르디움 5차 아파트에서 열린 '2011 제8회 광주 에너지의 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인간동력 전기생산'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베릴륨 초과 'T-3' 전량 회수

식약청, 치과용 합금 엄격 관리

최근 유해성 논란(광주일보 8월 22일 6면)이 제기된 베릴륨(Be) 포함 치과용 합금에 대해 보건 당국이 더욱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다만 베릴륨의 피해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증기 등에 관한 것으로, 가공을 마치고 고체 형태로 환자에게 사용된 베릴륨 합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식약청은 베릴륨 포함 합금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9년 6

월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베릴륨의 유해성은 치과기공소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 등에 따른 것으로, 주조 후 환자에게 사용된 합금 상태의 경우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합금 제품 "T-3"를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우한진덴탈)를 고발하는 동시에 6개월 수입업무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T-3는 이른바 '도자기 치아'를 씌울 때 내부에 구조물료 사용되는 합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진덴탈은 베릴륨 기준 초과로 수입이 금지된 T-3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2008년 7월 베릴륨 국내 합량 기준을 기존 '중량기준 2%이하'에서 '0.02%이하'로 강화하고 다음해 6월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했으나, 이 업체는 기준치 이하 베릴륨이 포함된 제품을 계속 수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금지 품목의 유통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뿐 아니라 국가간 베릴륨 허용 기준이 다르고 문서 위주로 수입 허가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필뉴스

전세버스 기사 분신 기도

23일 오전 10시10분경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모 버스회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박모(69)씨가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온 몸에 화상을 입은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세버스 운전기사 박씨가 재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갑자기 휘발유를 가져와 몸에 뿌렸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im Young & Partners (김영과함께) featuring 140,000 satisfied clients and services like English training and legal consultation.